

# 불교학 저변 확대의 원년되길 기대

### 2013년 올 한해 학술계를 달굴 이슈는 무엇일까?

2013년 불교학계의 이슈는 무엇이 될까.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은 우수학술지 선정 논란이다. 교과부는 2012년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학술지 등재 제도를 없애고,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문학총연합회를 비롯해 인문학계는 우수학술지 지원사업이 인문학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수학술지 사업 재원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지원예산과 겹치기 때문에 우수학술지 지원에 재원이 물리머 소수학과와 지방학술지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 12월 말 발표된 우수학술지 선정에서는 7종의 학술지를 선정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5개만이 선정됐다. 인문학계의 반대로 인문분야를 통틀어 1개의 학술지 만이 지원을 받았다.

불교학계는 기존 학술지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학술지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는 우수학술지 지원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과 함께 불교학 등 인문학 발전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는 40주년과 20주년 등 각 단체들의 창립을 기념한 굵직한 행사가 마련된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2월 1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기념행사로 동계 불교학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수학술지 선정, 평가 논란일 듯**  
**20·40주년 맞은 단체들 사업 본격화**  
**성철, 탄허, 경운 등 큰 스님 선양**

“나의 학문과 저서, 저자로부터 듣는 불교학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논문 발표형식으로 진행되던 워크숍 방식을 탈피해 연구자들이 저술 과정에서의 정성과 열정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권오민 경상대 철학과 교수의 ‘상좌 슈리라타의 경비비바사 연구’, 김성철 동국대 불교문화학부 교수의 ‘승랑 :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한국불교사연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자현 스님의 ‘사찰의 상징세계’ 등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박창환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 김영진 동국대 HK 연구교수, 이기은 동국대 불문연 연구교수, 동국대 강사 태경 스님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12년부터 준비한 사업들의 결실을 발표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10년부터 고려조조대장경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고려대장경 교장의 DB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이 기존의 경·율·론 삼장에서 교장과 선장(禪藏)을 포함한 5장의 전산화 및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그 일환으로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기념법회에 앞서 고려대장 연구사업 성과 발표회를 갖는다. 또 3월 중 대구 동화사와 일원에서 봉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라문화원도 20주년을 맞아 2월 중으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며 가산불교문화연구원도 20주년을 맞아 연구원을 창립한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2012년 개원 50주년을 맞은 불교문화연구원도 5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국내 학술연구에서 북한 지역

연구로 사업을 확장해 5월 경 ‘북한의 불교와 문헌’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큰 스님들의 탄신·열반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도 활발히 진행된다.

먼저 한국 불교의 최고 학승으로 꼽히는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자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주석되었던 평창 월정사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탄허대종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 주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백련불교문화재단은 11월 중으로 20주기를 총정리하는 결산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태고종에서도 일제강점기 대강백으로 추앙받은 경운 운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처음으로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6월 14일 개최한다.

선양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불교평론> 사태와 같은 필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월 5일 개최된 정화 스님 열반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제출된 보광 스님의 논문이 문도회 측의 반대로 발표가 중단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봉선사 큰법당 근대문화재 등록

### 윤허 스님 한글 역주 원력... 전통구조에 콘크리트 사용 특색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이 등록문화재에 등록됐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는 구랍 14일 “한국 사찰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법당으로 윤허 스님이 발원한 중요성이 크다”며 봉선사 큰법당을 등록문화재 제522호로 지정했다.

봉선사 큰법당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윤허 스님의 뜻에 따라 대웅전 현판을 한자인 ‘大雄殿’으로 하지 않고 ‘큰법

당’이라고 한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소돼 1970년 윤허 스님에 의해 새롭게 조성됐다.

전통건축물을 모방한 콘크리트건물의 초기 작품으로, 남아있는 전통목조양식을 모조한 콘크리트 건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고 전통목조건축물을 재현한 초창기 콘크리트건물로서는 조형감이 뛰어난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봉선사 큰법당. 대웅전을 한글로 번역해 ‘큰법당’이라 이름 붙여졌다.

#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관리 교재 보급

사찰방재예측 시스템 등 문화재 방재 예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 재난 피해 교육자료인 <문화재 생물관리 매뉴얼>과 <문화재 안전관리>를 개발해 보급했다.

<문화재 생물관리 매뉴얼>은 목조 문화재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습성과 피해예방을 위한 일상관리요령 등을 수록하고 있다. <문화재 안전관리>는 문화재의 재난피해 특성, 안전관리 활동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요령 등을 기술했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개발한 매뉴얼과 교재는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불교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



문화재 안전관리 교육교재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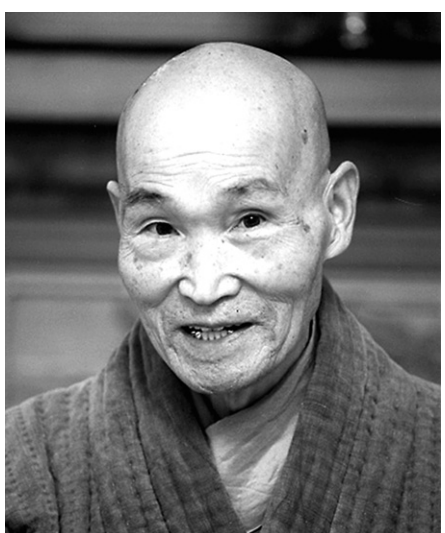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이번 매뉴얼과 교재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염불선은 붓다 재세시 시작된 불교 전통수행법”

### 청화 스님 열반 10주년서 염불의 시원 재조명

청화 스님 열반 1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에서 조사들의 사상에 나타난 염불선(念佛禪)이 집중 조명됐다.

청화 스님(淸華, 1923~2003·사진)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화 스님은 40여 년간 20여 곳의 토굴을 옮겨 다니며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을 계속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승이다.



삼매(三昧, samadhi)와 동의어로 보편적 수행법이었다”고 말했다.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에서 벽산문도회와 청화사상연구회가 주관해 열린 추모세미나에서는 조준호 교수(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의 ‘초조달마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을 통해 염불선의 연원이 초조 달마 대사에 있음을 밝혔다.

조 교수는 염불선의 근원이 초기불교 수행법으로 시작해 초조 달마 대사, 4조 도신 스님 등에 있음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염불선은 부처의 성품과 공덕을 입으로 염하며 그 성품을 따르기를 서원하는 행법으로서 염불이 출발한다”며 “염불선의 선(禪)은 바로 선정(禪定)이나

석했다. 조 교수는 당시에도 <염불삼매경>(<염불보살삼매론> 등 경명은 ‘염불삼매’나 ‘염불정(念佛定)’이 널리 보편화됐음을 알려준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불교경전에 붓다가 중생의 근기와 성향에 맞게 제시한 다양한 종류의 단계별 수행법이 있음에도 대부분 사장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많은 수행전통들이 단절됐다”며 “현실은 과거처럼 획일적인 하나가 융인되거나 강조될 수 없는 다양성과 다원화된 시대에 걸맞게 과거처럼 특정 수행법만이 정통이라고 하는 낡은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중들의 다양한 근기와 성향에 걸맞게 다양한 수행법이 제시되는 진질한 불교가 돼야 한다”면서 “오랜 불교 역사 속에 전개되어 왔던 다양한 수행전통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금타 스님과 청화 스님의 염불선은 의미가 크다”며 “우리시대에서 청화선사의 염불선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수행풍도를 벗어나 근기와 성향에 맞게 불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그 가치를 진단했다.

한편, 청화 스님의 <원불법범의 요체>를 분석한 최동순 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는

“격동기의 시대적 대립과 질곡을 해소하려고 원불법범의 가치를 들었다”며 “청화 스님은 간화선이 누구나 향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기의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염불선을 제시한 것”이라 진단했다.

최 교수는 “스님은 평생을 ‘지(止)·관(觀)·혜(慧)·정(定)’ 수행으로 살며 선법 체계화를 이뤘으며 수행목표로 ‘안심(安心)’으로 삼았다”며 “안심은 깨침과 동등한 의미로 스님은 정도구현이 대중들의 ‘안심 도달’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박경준 교수는 혜능선사의 선사상과 청화 스님의 실상염불선을 비교 검토하며 “혜능대사의 가르침에 잘 조응하고 있는 등 두 선사의 사상이 맞닿아 있음을 규명했다.

이날 벽산문도회 회장 용타 스님도 “청화 스님은 수행이 삶이었고 삶이 또한 수행이었다”고 회고하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스님의 모습에서 진실한 수행자를 발견해 해답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청화사상연구회와 벽산문도회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선사화전과 법어집, 추모사진집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정청, 시랑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범은 스님, 월봉 스님

### 2.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승려총무원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법

## 제 1기 힐링 분석 상담사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을 분석 치유, 심리, 영적인, 미래예측, 인간관계, 학생들의 인성 지도와 진학지도, 직업상담, 연애, 풍수, 수맥, 사업종목선정 등에 활용 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힐링 분석 상담사과정. 현재의 문제점을 빠르게 간파하는방법

<개인 상담료 4만 자신의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분석을 책자로 만들어 드림>

1. 육체적인 질병과 건강.내분비선의 이상유무
2. 성적인 능력의 사용유형 .성능력의 성향분석
3. 감정적인 조절능력과 건강을 돌보고자하는 능력
4. 사랑을 나누는 방식과 인간적인 대인관계능력 (인간관계의 특징)
5. 자신의 야망과 직업적인 적성과 직업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력 (직업적인성취도)
6. 정신적인 이해력과 행동과정 (빙의와 정신이상 우울)
7. 영적인 수행능력과 통합능력 (깨달음의 통합능력)
8. 미래 예측 ,사업종목, 직업, 적성,궁합,성격,풍수,수맥 과학적인 에너지분석
9. 강의가 필요한 기업체 사장님이나 단체는 연락주시면 선별후에 연락드립니다. 필요한 인재를 선택하는 방법, 적성과 솔질에 따른 부사배치, 자녀의 진로.

※ 진동주파수감지를 통한 다루징기법 미국의 존피에코라스박사의 방법

1. 일반인반 4회 - 완성 과정 (책자제공)
2. 전문가반 6회 -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한 자 (책자제공)

※ 힐링분석상담사란?

민간자격증으로 인간의 전기장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읽어 치유와 건강, 심리, 궁합, 직업, 적성,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현황 기입 자격증 발급과 월 2회 사례발표회와 특징

공개 강좌 : 월 2시, 토 2시 , 목 2시 공개 강좌 및 강의 진행

힐링분석상담사 협회 협회장 김광우(빛의 친구)

#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 몸이다.